

1920~30년대 시에 나타난 가족과 여성

이혜원*

1. 서론
2. 가족의 상실과 복원의 꿈 : 김소월
3. 공동체에 대한 향수와 낭만적 사랑 : 백석
4. 가족의 붕괴와 여성의 수난사 : 이용악
5. 가족의 억압과 위선에 대한 부정 : 이상
6. 결론

* 고려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1920~30년대 시에 나타나는 가족과 여성의 형상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김소월, 백석, 이용악, 이상의 시를 대상으로 가족과 여성의 삶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또한 그것이 당대 현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고찰하였다.

김소월의 시에서 가족은 전통적인 가부장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혈연적 공동체로 나타난다. 그의 시에서 식민 치하의 삶은 가족의 가치를 더욱 공고하게 하며 가족의 상실을 초래하는 현실은 부재와 결핍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여성은 자연과 같이 절대적이고 희생적인 존재로 이상화되며 낭만적 동경과 향수의 대상이 된다.

백석 시에서 가족은 끈끈한 혈연관계에 의한 친근하고 화해로운 공동체이다. 원체험의 기억과 낭만적 상상에 의해 복원된 모성적 공동체는 민족의 원형에 대한 동경과 상통한다. 이상적인 여성의 형상과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환상 역시 식민지 현실의 파행적 근대와 계몽적 이성에 대한 반동에 해당한다.

이용악은 당대의 사회 역사적 상황과 긴밀하게 관련되는 가족과 여성의 형상을 그려낸다. 고향을 잃고 떠도는 유이민들의 처절한 가족사와 타국으로 팔려간 여인들의 비극적인 삶의 묘사는 당대의 민족적 현실을 첨예하게 반영한다. 그의 시에서 고통받고 유린당하는 여성들의 수난상은 비극적 민족 현실과 일치한다.

이상은 가부장제에 대한 과감한 비판과 부정을 행한다. 가부장제는 모든 억압적인 제도의 상징이며 가족은 가부장제의 폐해가 집중된 부정의 대상이다. 그의 근대적인 예리한 자의식은 폐쇄적이고 기만적인 식민지 현실과 가족의 허위를 치열하게 거부한다.

식민지 시대의 시인들에게 가족은 시대의 모순과 개인의 체험이 만나는 문제적 공간으로 드러난다. 식민지 현실에 대한 저항이 급선무였던 이 시대에 전통적인 가족 개념은 오히려 공고하게 유지된다. 가족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커지면서 낭만적 상상에 의해 본원적인 가족의 형상을 구현하고 모성을 신비화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상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핵심어 : 가족, 여성, 모성, 가부장제, 김소월, 백석, 이용악, 이상.

1. 서론

가족은 삶의 기본적인 단위로서 문학의 친근한 주제가 되어 왔다. 개인적 삶과 집단적 삶이 공존하는 지대인 가족은 내밀한 개인적 사유로부터 사회 역사적 문제를 포괄하는 문학적 소재의 보고이다. 특히 국권 침탈과 전쟁, 쿠데타 등으로 파행적인 굴곡을 그려온 우리 근대사 속에서 가족은 그 시대적 상흔을 침예하게 반영하는 구체적 현실로서 존재해왔다. 따라서 가족은 단순한 혈연적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육체가 자신의 욕망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회 관계들 속으로 뺏어나가는 곳이며, 또한 역으로 사회의 여러 가지 힘과 권력 그리고 이념과 상징들이 스며 들어오는 장소”¹⁾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와 이념 중에서 특히 주목해볼 것은 “모성에 대한 찬미, 애정과 합의를 가족관계의 기초로 강조하는 것, 은신처이며 천국 같은 가정이라는 가족의 개념”²⁾처럼 여성의 경험을 신비화하는 것들이다. 근대사의 질곡으로 인해 가부장제가 공고하게 유지되고 모성이 절대화되어온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 이데올로기의 위력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난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1920~30년대는 식민지 상황으로 인해 오히려 가족의 결속력이 더욱 강조되고 가부장제가 굳건하게 유지되는 시기이다. 국가의 상실로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가족은 존재의 근거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 작용한 것이다. 그리하여 기존의 가부장적인 가족제도가 민족의 자존과 전통을 유지하며 답습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모성이 절대화되고 신성시되어 가부

1) 신범순, 「시에서 '가족'의 기호와 상징」, 『포에티카』(1997.여름호), p.74.

2) 배리 소운,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권오주 외 역(도서출판 한울, 2003), p.24.

장제의 확고한 기반을 이루게 된다. 식민지라는 극한 상황에서 여성의 희생과 종속은 쉽사리 용인된다. 여성은 지배적인 식민제도와 가족제도 속에서 이중으로 식민지화된다.

본고에서는 1920~30년대 시에 나타나는 가족과 여성의 형상을 살펴보려 한다. 가족적 삶의 양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김소월, 백석, 이용악, 이상의 시를 대상으로 각각의 경우에서 가족의 가치와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또한 그것이 당대 현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고찰해보도록 한다. 남성 시인들에게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가족 이데올로기와 여성의 신비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의 모성 예찬은 여성을 타자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환상의 대상으로 관념화하려는 가부장적 감상주의의 색다른 표현이어서 여성비하이데올로기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³⁾인다는 주장처럼 신비화된 모성은 가부장제의 건재를 입증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우리 시 연구에서 가족 담론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80년대 이후의 시들에 집중되어 있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전면적으로 해체되는 문체적 현상이 반영된 시들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식민지 시대의 시들은 가족 의식의 차원으로 볼 때 전근대적인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목이 덜했던 것이다. 이 시기의 시들을 다룬 경우도 가족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양상을 긍정 또는 부정이라는 고정된 관점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 근현대문학에 나타난 가족담론의 전개와 그 의미:현대시』⁴⁾에서는 가족 담론이 나타나는 현대시를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보호와 안정을 제공하는 가족의 긍정적

3) 장영우, 『한국 여성의 문학적 초상』, 『한국문학과 여성』(아세아문화사, 2000), p.56.

4) 김현자·엄경희, 『한국 근현대문학에 나타난 가족담론의 전개와 그 의미』, 『한국언어문학』, 51집(2003.12).

측면과 개인을 억압하는 부정적 측면”이라는 양가적 의미를 살피고 있다. 여기에서 식민지 시대의 시들은 주로 ‘자기 정체성의 원형으로서의 가족’이라는 긍정적 가치와 관련된다.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가족』⁵⁾에서도 이 시기의 시들이 강한 가족적 연대감을 드러내며 식민지 하의 사이비 근대에 저항하며 민족사의 전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식민지 상황과 관련된 가족의 특성과 의미를 밝혀준 반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해 신비화되면서 구체적 현실에서 벗어난 여성의 문제는 간과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가족 담론과 관련해서 별로 주목되지 않았던 1920~30년대 시들을 대상으로 가족과 여성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살펴볼 것이다. 긍정 일변도로 해석되었던 모성의 절대성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리라 본다. 모성은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도 줄곧 찬반 논쟁을 일으켜올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영예롭고 이상적인 존재로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가부장제를 지탱하는 신화로 이용되면서 억압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여 극력 부정되기도 한 것이다. 어떤 경우이거나 모성을 절대화하고 과장하는 측면이 있다. 최근에는 모성에 대한 이런 과장된 설명을 피하고 일상생활의 실제적 경험을 중시하며 문화적 산물로서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⁶⁾ 모성을 절대화하는 논리는 여성적 경험을 탈역사화하여 구체적인 삶의 영역으로부터 배제하게 된다. 모성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의 배타적 평가 이전에 그것이 자리하는 다양한 사회·역사적 맥락과 여성적 삶의 구체적 양상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식민지 시대 시에 나타나는 가족과 여성의 형상은 민족과 계급의 모순 뿐 아니라 성 모순이 중첩되어 있어 예민한 문제의식을 내포한다. 그동안 민족이나 계급 같은 거대 이념에

5) 이승원,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가족』, 『시안』(2003.겨울호).

6) 베리 소운, 같은 글, pp.25~26 참조.

가려 신비화되었던 모성의 문제는 여성의 삶과 구체적 경험의 산물로 재인식되고 그 사회·역사적 맥락이 풍부하게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2. 가족의 상실과 복원의 꿈 : 김소월

김소월의 시는 1920년대 대다수의 시인들이 공유했던 가부장적인 사고와 가족과 고향 상실의 절망감, 충만한 가족의 상상적 재현 등의 시적 특질들을 대변해준다. 김소월의 몇몇 시들은 유교적인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전통적인 가부장제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드러낸다. 그의 시에서 가족은 부모 자식간의 끈끈한 혈육애로 연결된 절대적인 공동체이다.

나는어찌면 생겨나와
이이야기 듯는가?
못지도마라라, 來日날에
내가父母되여서 알아보랴?

「父母」부분7)

어버이님네들이 외오는말이
『쌀과아들을 기르기는
훗길을보자는 心誠이로라.』
그러하다, 分明히 그네들도
두어버니틈에서 생겼서라.

「훗길」부분8)

7) 김소월, 『진달래꽃』(매문사, 1925), p.57.

8) 위의 책, p.115.

가족은 이처럼 부모와 자식의 혈연적 관계로 구성되는 것이며 대를 이어서 유지되는 강한 결속력을 갖는다. 이 시들에서는 가족의 필연성과 연속성에 어떤 의심이나 불안도 엿볼 수 없다. 가족의 유지와 보존은 이 당시 삶에서 절대적인 존재의 이유에 해당한다. “바이죽지못할 것도 안이지마는/금년에 열네살, 아들딸이 잇섯서/순복에아부님은 못하노란다.”(「어버이」)에서처럼 자식을 양육하고 대를 이어야한다는 가족의 규범이 존재를 규정한다. 부부 역시 하늘이 맺어준 인연에 의한 필연적 관계로 인식되어 가족 제도의 확고한 기반을 이루고 있다.

절대적인 인연과 혈연에 의해 결속된 가족에 대한 신념은 식민 치하의 궁핍하고 불안한 삶의 여건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의 시에는 가족이나 고향을 잃은 화자의 강렬한 그리움이 자주 나타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족과 고향을 떠난 화자가 보이는 심적인 동요는 이런 원초적 공간의 상실로 인한 심각한 타격과 함께 본원으로서의 회귀와 복원의 열망을 반영한다. “朔州龜城은 山넘어/면六千里/각금 각금 썸에는 四五千里/가다오다 도라오는길이겠지요”(「朔州龜城」)에서처럼 그의 시에서 가족이나 고향의 상실은 실제적 상황이라기보다 심정적 거리감과 관련되는 것이다. 시작품에 나타난 질은 향수나 실향의식의 정서는 상실된 본래의 세계를 찾고자 하는, 그 통시적 동일성에 대한 서정적 갈망이라고 볼 수 있다.⁹⁾ 식민 치하의 현실은 순수한 본원으로서의 가족의 개념을 더욱 강화시키며 그것이 상실되고 훼손된 현재의 모든 거소를 부재와 결핍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김소월 시에 자주 나타나는 추상화된 ‘집’의 형상은 가족과 고향의 상실을 내면화한 상징적 표상이다.

9) 김준오, 『시론』(삼지원, 1995), p.415 참조.

들싸에셔러져 나가안즌메씨슌의
 넓은바다의물싸뒤에,
 나는지오리, 나의집을,
 다시금 큰길을 압페다 두고,
 길로지나가는 그사람들은
 제각금 썩러져서 혼자가는길.
 하이안여울턱에 날은점을때,
 나는 門판에 섰서 기다리리
 새벽새가 울며지새는그늘로
 세상은회계,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아침부터,
 지나가는길손을 눈껴여보며,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나의집」 전문¹⁰⁾

김소월 시에서 집은 '자아를 보호하는 비자아'¹¹⁾로서의 자족적인 물
 질적 공간이 아니다. 그의 시에서 집은 누구와 함께 거처하나에 따라
 이상적 공간이 되기도 하고 불완전한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 시와 흡
 사하게 물가의 집이란 이상적 공간이 나타나는 「엄마야 누나야」에서
 는 가족과 함께하는 완벽하고 원형적인 집의 형상을 그리고 있다. 「엄
 마야 누나야」에서 꿈꾸는 이상적인 자연은 원체험의 공간에 해당되는
 모성적 거소이다. 이 시에서 자연의 빛과 울동이 넘치는 물가의 집은
 생명의 원천으로서 물이 갖는 모성적 의미를 감각적으로 재현하고 있
 다. 물론 이 때의 집 또한 상상과 기원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현실과의
 절대적인 거리감을 확인할 수 있다. 김소월 시에서 이상적인 집은 충
 만하고 순수한 자연의 공간과 일치한다. 그러나 아무리 이상적인 집이

10) 같은 책, pp.118~119.

11) 가스통 바슐라르, 『공간의 시학』, 광광수 역(민음사, 1990), p.115.

어도 ‘님’이 부재하는 곳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이 시에서 ‘길’과 ‘문’의 의미가 강화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길’과 ‘문’은 님과 집이 연결되는 통로이다. 이 시에서 집은 ‘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공간이 아니라 ‘님’의 도래를 갈망하는 기원의 장소이다. 상실의 공간을 표상하는 ‘집’과 부재함으로써 열망의 대상이 되는 ‘님’은 그의 시에 강한 낭만성을 부여한다. 현실과 이상의 거리는 회복 불가능하게 멀어지고 ‘집’과 ‘님’의 복원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다.

나는 꿈꾸엿노라, 동무들과내가 가르란히
 별씨의하로일을 다맞추고
 夕陽에 마을로 도라오는꿈을,
 즐거히, 꿈가운데.

그러나 집일흔 내몸이어,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보섭대일쌍이 잇섯드면!
 이처럼 써도르라, 아츰에점을손에
 새라새롭은歎息을 어드면서.

「바라건대는 우리에게우리의보섭대일쌍이 잇섯드면」 부분¹²⁾

김소월 시 가운데 욕망과 현실의 대립에 관한 가장 구체적인 상상을 보여주는 예들은 자연 속에서의 즐거운 노동과 관련된다. 고향은 노동의 즐거움이 실현되는 상상의 공간이다.¹³⁾ 김소월의 시로서는 드물게 활기찬 삶의 장면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이 시 역시 동경과 상상의 산물이다.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소박한 꿈조차도 ‘집 잃은’ 몸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시인은 모든 가치와 존엄성이 훼손된

12) 김소월, 앞의 책, p.145.

13) 줄고, 「한용운·김소월 시의 비유구조와 욕망의 존재방식」, 『현대시의 욕망과 이미지』(시와시학사, 1998), p.158.

식민지 현실을 상실의 공간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의 시는 가족과 고향이라는 전통적인 존재의 근거마저 붕괴된 현실을 탄식하며 상상적 복원을 꾀함으로써 동시대의 보편적 정서와 호응한다. 고향에 거처하면서도 고향 상실의 비애를 토로했던 시인은 억압된 현실로 인해 훼손된 본원을 향한 강렬한 낭만적 지향을 대변한다.

본원에 대한 그리움은 여성에 대한 이상화를 추구한다. 그의 시에서 ‘어머니’나 ‘누나’와 같은 여성의 이미지는 근원적인 자연이나 절대적인 희생의 의미를 내포한다. 「엄마야 누나야」에서 지향하는 이상적인 집은 모성적 자연의 이미지와 일치한다. 편안하고 충만한 자연의 집에 대한 동경은 모성에 대한 이상화와 다르지 않다. 「접동새」의 ‘누나’ 역시 현실과 희생을 불사하는 모성의 상징이다. 여성은 늘 거기에서 아낌없이 베푸는 자연과 같이 절대적이고 희생적인 존재로 인식된 것이다. 그 역시 여성을 타자로서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삶의 실체로 그리기보다는 이상화하고 관념화하는 남성 중심의 관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에게 여성은 전통이 상실되고 근원이 붕괴되는 극한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거처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모성과 자연의 절대화는 현실에 대한 직접적 대결보다는 낭만적 동경과 향수가 강했던 시인이 행할 수 있었던 잃어버린 가족과 고향의 상상적 복원의 산물이다.

3. 공동체에 대한 향수와 낭만적 사랑 : 백석

백석은 김소월이 보여주었던 모성적 공간의 상상적 복원을 더욱 치열하게 몰고나간다. 식민지 시대 남성시인들 중에서 백석의 시처럼 여성이 많이 등장하고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백석은 여성의 삶에 대한 섬세한 접근을 통해 당대의 훼손된 역사를 포착하고

그 이전의 본원적인 고향을 모성적 공간으로 구현하여 민족적 삶의 원형을 복원하려 한다. 초기 『사슴』 시편의 시들은 대부분 유년 화자의 기억과 상상을 통해 원초적이고 모성적인 고향과 친족 공동체를 재현하고 있다. 유년의 기억에 의해 그려진 고향의 공동체적 삶은 순수하고 토속적인 세계에 대한 향수를 내포한다. 백석의 시에서 가족은 끈끈한 혈연관계에 의해 형성된 친근하고 화해로운 집단으로 형상화된다.

명절날나는 엄마아빠따라 우리집개는 나를따라 진할머니 진할아버지가
있는 큰집으로가면

얼굴에별자국이숨숨난 말수와같이눈도꺼벅걸이는 하로에베한필을짜다
는 별하나건너집엔 복숭아나무가많은 新里고무 고무의딸李女 작은李女

열여섯에 四十이넘은홀아버의 후처가된 포족족하니 성이잘나는 살빛치
매감탕같은 입술과 짓꼭지는더깎안 예수쟁이마을가까이사는 土山고무 고
무의딸 承女 아들承동이

六十里라고해서 파랑계뵈이는山을넘어있다는 해변에서 과부가된 코끝
이뻗안 언제나흰옷이정하든 말끝에설게 눈물을짜때가많은 큰콩고무 고무
의딸洪女 아들洪동이작은洪동이

배나무접을잘하는 주정을하면 토방돌을뽑는 오리치를잘농는 먼섬에 반
디것 닭으려가기를좋아하는삼촌 삼촌엄매 사춘누이 사춘동생들

이그득히들 할머니할아버지가있는 안간에들뭉여서 방안에서는 새옷의
내음새가나고

또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차떡의내음새도나고 끼때의두부와 콩나물과 뽕
운잔디와고사리와 도야지비게는모두 선득선득하니 찬것들이다

「여우난곡族」 부분¹⁴⁾

이 시에서는 전형적인 친족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명절날 큰집을 향해 모여드는 친척들의 모습이 일일이 열거되어 풍성하고 끈끈한

14) 백석, 『사슴』(선광인쇄주식회사, 1936), pp.6~9.

연대감을 드러낸다. 혈연에 의해 엮이고 묶인 가족과 친족의 구성원들이 선연하게 재현되고 있다. 각각의 구성원들은 저마다 순탄치 못한 삶의 이력들을 지니고 있지만 ‘그득히들’ 모여 있을 때는 충만하고 자족적인 상태가 된다. 이 시에서 친정집으로 모여든 고모들은 모두 남편 없이 자식들만을 데리고 등장한다. 순탄치 못한 결혼과 불행으로 남편을 잃고는 한 가족을 이끌고 살아가는 것이다. 어머니에 이끌려온 아이들이나 풍성한 음식의 묘사는 이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모성적이고 원형적인 것으로 만든다. 가부장적인 질서나 위엄은 배제된 채 음식과 놀이로 풍성한 풍속이 재현되면서 모계 중심적인 가족의 화합과 보호의 의미가 강조된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시누이동세들이 옥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론 셋문틈으로 장지문틈으로 무이징계국을 끄리는 맛있는내음새가 올라오도록잔다”고 하여 모성에 의해 철저히 보호될 때의 안온함과 행복감이 인상 깊게 표현된다. 백석의 시에서 모성은 공동체의 삶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강력한 보호막으로 인식된다.

가족과 공동체를 이끄는 모성의 위력은 종종 ‘신모’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백석의 시에 등장하는 ‘신모’의 이미지는 가족이나 마을의 흥사를 다스려주는 모성의 샤머니즘적 발현이라 할 수 있다. 『가즈랑집』의 할머니는 마을 아이들이 태어날 때나 병을 앓을 때 치성을 드려주는 대표적인 신모이다.¹⁵⁾ 예순이 넘고 아들도 없고 중같이 정하며 독

15) 신모적 모성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데미테르 원형이나 우리 나라의 당금아기, 바리데기, 청정각씨 등 여성 신화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보편성을 지닌다. 이들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 등의 여성의 과업을 묵묵히 수행해 내고 남성적 공간에서 끊임없이 쫓겨남을 당하고 결핍의 체험을 하지만 고통을 인내하고 감당해 내면서 신의 위치에 좌정할 정도의 능력의 확장과 성숙을 보여준다.

김현자, 『적극적·창조적 모성과 삶 본능의 에너지』, 『한국여성시학』(김은샘, 1997), p.39.

한 담배를 태우는 것으로 묘사되는 가즈랑집 할머니는 나름대로 신산한 삶을 살아왔지만 마을의 아이들에게는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전형적인 신모적 모성을 보여준다. 시인은 부권이 상실된 식민지하의 민족 현실을 감당했던 신모적 모성의 헌신적인 보호를 원형적인 기억으로 복원한다. 또 다른 시 「오금덩이라는 곳」의 젊은 색시들은 비난수를 하며 액막이를 하고 「三防」에서는 작두를 타며 굶을 하는 애기무당이 등장한다. 이런 신모의 이미지는 불운하고 암담했던 시대에 가족 공동체를 지켜낸 모성의 인내력과 강인함을 대변한다.

시인은 신모적 모성이 드러내는 원초적이고 토속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을 통해 근대의 계몽적 이성에 대한 반작용을 보여준다. “샤머니즘은 도구적 이성의 폭력성을 전복시키기 위해 전반성적 세계로 퇴행하여 황홀경 속에 인간적인 것의 회복을 지향하는 감싸안기를 통해 사회역사적 맥락을 배경화하는 수단”¹⁶⁾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백석이 보여주는 원초적인 모성의 공간에 대한 낭만적 동경은 계몽적 이성이 작용하지 않는 민족적 원형에 대한 복원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는 여성의 수난사를 통해 식민 치하의 암울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여성이 지닌 원초적이고 모성적인 힘에서 민족적 자존과 생명력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러한 모성은 계몽적 이성에 의한 파행적 근대와 황폐화된 현실을 넘어서고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식된다. 원체험의 기억과 낭만적 상상에 의해 복원된 모성적 공동체는 훼손되지 않은 민족의 원형에 대한 동경과 일치한다.

백석은 결코 여성적 삶의 구체적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욱 본능적으로 여성에 대한 낭만적 동경에 이끌린다.

16) 유임하, 「모성의 근대성과 그 소설적 전개」, 『한국문학과 여성』, 앞의 책, p.81.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밤은 푹푹 눈이나린다

나타샤를 사랑은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燒酒를 마신다
燒酒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밤 험당나귀타고
산골로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산골로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리 없다
언제벌서 내속에 고조곤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것이아니다
세상같은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나와 나타샤와 험당나귀」 부분17)

성인 화자가 등장하는 이 시에서는 적막한 현실과 낭만적 사랑에 대한 환상이 겹쳐지고 있다. 화자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는 처지이지만 상상에 몰입하여 사랑의 확신에 이른다. 유랑자인 그의 삶과 사랑은 ‘세상’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세상같은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는 선언에서 현실과의 근본적인 불화를 살필 수 있다. 화해할 수 없는 현실에 부응하기보다는 고독하고 쓸쓸한 자존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흰 바람벽이 있어」)고 스

스로의 운명을 규정하고 고독한 실존과 절실한 사랑을 삶의 본질로서 받아들인 것이다. 그에게는 폭폭 내리 쌓이는 눈조차 더러운 세상을 가리고 순결한 사랑을 축복하는 징후로 여겨진다. '나타샤'라는 이국적인 이름으로 인해 더욱 환상적으로 그려지고 이상화되는 여인 또한 그의 낭만적 성향을 보여준다.

백석은 식민지의 질곡 속에서 현실과의 직접적인 대결보다는 과거에 대한 향수나 낭만적 상상을 통해 화해와 사랑을 성취해내는 방식을 취한다. 그의 시에서는 민족적 원형을 담보한 모성의 이미지나 낭만적 사랑의 대상으로서 여성이 이상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로 인해 여성을 신비화하고 모성의 신화를 창출하기도 한다. 그에게는 식민지 현실의 파행적 근대와 계몽적 이성애 저항할 수 있는 낭만적인 상상과 탈근대적 전통이 더 절실한 가치였기 때문이다.

4. 가족의 붕괴와 여성의 수난사 : 이용악

이용악의 시에서 가족과 여성은 당대의 사회 역사적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되며 가장 현실적으로 그려진다. 그의 시는 식민지의 현실을 극적으로 반영하는 유이민의 비극적 삶을 사실적으로 반영한다. 그의 시에는 강점과 수탈로 피폐해진 식민지 현실로 인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유랑을 길을 떠나게 되는 뿌리 뽑힌 가족들의 처절한 사연이 들어 있다. 고향의 상실과 가족의 해체는 당대의 민족적 모순을 첨예하게 대변하는 사회 현상이다.

우리집도 안이고
일갓집도 안인 집

고향은 더욱 안인 곳에서
 아버지의 寢床 업는 최후 最後의 밤은
 풀버렛소리 가득차 잇섯다

露領을 단이면서까지
 애써 자래운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업섯고
 아무을灣의 파선도
 설렁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이즈섯다

「풀버렛소리 가득차 있었다」 부분¹⁸⁾

시인 자신이 경험한 유이민의 삶은 그의 시에 구체성과 실감을 부여한다. 이 시에서는 유이민으로 살다 타관에서 죽어간 아버지의 비극적 삶을 그리고 있다. “우리집도 안이고/일갓집도 안인 집/고향은 더욱 안인 곳”으로 반복 강조하는 것은 집과 고향을 잃고 떠도는 안타까운 삶의 현실이다. ‘우리집’이나 ‘일갓집’, ‘고향’ 등의 친근한 삶의 공간을 대치한 ‘露領’, ‘아무을灣’, ‘니코리스크’ 같은 이국적 지명들은 유이민들이 겪었을 고단하고 적막한 삶을 암시한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이국땅에서 떠돌다 침상도 없이 죽음을 맞는 가장의 운명은 식민지 현실에서 위태롭게 유지되던 가부장제의 상태와도 같다. 절대 빈곤 상태의 피폐한 현실은 가부장제의 기반마저 흔들고 가족을 해체시킨다. 이용악의 시에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나 몸 파는 여자들이 많이 등장하여 가족의 해체로 인한 극한적 삶의 정황을 보여준다.

북쪽은 고향
 그 북쪽은 女人이 팔녀간 나라
 머언 山脈에 바람이 얼어붙들째

18) 이용악, 『分水嶺』(삼문사, 1937), pp.19~20.

다시 풀릴때
 시름 만흔 북쪽 하늘에
 마음은 눈 감을줄 몰으다

「北쪽」 전문¹⁹⁾

胡人の 말모리 고향
 놓나저 지나는 말모리 고향 —
 뼈자린 채스죽 소리
 젓가슴을 감어 치는가
 너의 노래가 漁夫의 자장가처럼 애조롭다
 너는 어느 凶作村이 보낸 어린 犧牲者나

「제비갓흔 少女야 -강건너酒幕에서」 부분²⁰⁾

가족의 붕괴는 여성들을 생존을 위해 몸을 파는 극한 상황으로 내몬다. 이 시들은 고향을 떠나 타국으로 팔려간 여인들의 비극적인 삶을 그리고 있다. 「북쪽」에서는 고향보다도 더 먼 북쪽의 황막한 땅으로 팔려간 여인의 비애를 볼 수 있다. 이용악의 시에서 ‘북쪽’은 고향을 잃은 자들이 향하게 되는 극한의 부정적 공간이다. 「제비 갓흔 소녀야」에서도 이국땅에 팔려가 고통을 겪는 어린 소녀의 비극이 그려진다. “너는 어느 凶作村이 보낸 어린 犧牲者나”라는 구절은 소녀의 사연을 압축하는 동시에 당대의 궁핍한 현실과 여성들의 비극을 암시한다. 이용악의 시에서 여성의 수난사는 민족적 비극의 표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강압에 의한 수탈과 유린을 감내해야 하는 민족 현실과 여성의 희생은 흡사한 면모를 보인다. 시인은 이러한 식민지 상황에 대해 사실적인 접근과 함께 강한 정서적인 반응을 행한다. 이 시들에서도 여성들의 비극적 삶에 대한 연민과 비애가 서정적이고 극적인 묘사에 의해

19) 같은 책, pp.10~11.

20) 같은 책, pp.52~53.

표현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억압과 폭력은 거칠고 급박한 시어로 나타나며 연약하고 적요한 여성의 정조와 대비를 이룬다. 관념으로 흐르지 않고 구체적인 이미지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현실인식을 담고 있는 이용악 시편의 기본 성향은 서사 충동을 내장한 채 고유한 서정적 울림을 획득하고 있다.²¹⁾ 그의 시에 보이는 서사 충동은 서정시 특유의 감상성에 구체적 실감을 부여하고 서정적 울림은 프로시 쪽의 관념적이고 도식적인 현실 이해를 넘어설 수 있게 했던 것이다. 가족이나 여성의 형상을 보여주는 시들 역시 구체적인 경험이나 사실적 정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강한 정서적 환기력을 드러낸다.

유이민들의 비극과 수난의 여성사를 통해 그는 민족적 현실의 핵심을 간파한다. 당대 여성들의 수난상은 비극적 민족 현실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타국으로 팔려 유린당하고 고통받는 여성들은 꺾박받는 민족 현실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런 여성들의 수난사에 대해 시인은 강한 연민과 비애를 드러낸다. 가족의 붕괴와 여성들의 고난은 최소한의 생존마저도 위협받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다. 이런 극한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수없이 목격했던 시인에게 가족은 절대적인 가치로 인식된다. 특히 아버지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어머니는 보호와 안주의 거처로 자리 잡는다. 현실인식이 강했던 그의 시에서도 역시 어머니는 신비하고 절대적인 보호자로 그려진다.

삼살개 짚는 소리
 눈포래에 얼어붙는 선달 그믐
 밤이
 알곳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

21) 유종호, 「식민지 현실의 서정적 재현」, 『다시 읽는 한국시인』(문학동네, 2002), p.193.

걸어온 길가에 짙레 한송이 없었대도
 나의 아롱범은
 자옥자옥을 뉘우칠줄 몰은다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앓고나

철없는 누이 고수머털랑 어루맞이며
 우라지오의 이야길 캐고싶던 밤이면
 울어머닌
 서투른 마우재말도 들려주셨지
 줄음줄음 귀 밝히는 누이 잠들 때꺼정
 등불이 깜박 저절로 눈 감을 때꺼정

다시 내게로 헤여드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나는 그모도를 살뜰히 담았으니
 어린 기억의 새아 귀성스럽다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부분²²⁾

이 시는 시인에게 각인된 모성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낯선 항구를 떠도는 신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인에게 어머니가 보호하는 어린시절의 기억은 안온한 행복감으로 가득하다. 거칠고 황막한 현실과 대비되는 행복한 과거의 기억은 독립된 연과 형태의 변화로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다. 아버지의 몫까지 감당하며 가족을 이끌었던 어머니의 존재는 절대적이고 신성시된다.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는 구절에서는 어른이 된 화자에게도 어머니의 기억이 여전히 가장 아름답고 귀중한 것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극도로 궁핍한 생활과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불행을 겪으면서도 가족을 지켜준 어머니를 통해 그는 자애롭고 신성한 모성의 가치를 확신한다.

22) 이용악, 『낯은집』(삼문사, 1938), pp.56~57.

식민지 모순이 첨예하게 드러나던 유이민의 참상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시인은 가족과 민족의 의미를 절감했으며 그것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현실에 대해 강한 반감과 비애의 정서를 드러낸다. 여성과 어머니는 고난에 찬 민족 현실과 동일시되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귀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된다. 가족이 붕괴되는 비극적 현실은 역으로 가족의 가치를 절대적인 것으로 자리잡게 했던 것이다.

5. 가족의 억압과 위선에 대한 부정 : 이상

이상은 식민지 시대까지 다른 어떤 시인도 행하지 못했던 가부장제에 대한 과감한 비판과 부정을 보여준다. 외세에 대한 저항이 급선무였던 식민지 시대에 가부장제는 오히려 유지되어야 할 전통과 자존으로 인식된다. 가족은 개인의 존립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부계혈통을 이어갈 남성의 생존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여성들은 오히려 가장권을 지켜내기 위해 온 힘을 쏟고 남성의 부재를 일시적 현상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왔다.²³⁾ 남성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았던 식민지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가족의 존립과 위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은 강화되었던 것이다. 백부에게 양자로 입적되었던 이상의 개인사²⁴⁾는 식민지 시대에도 여전히 가부장제의 전통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일제에 의한 근대식 교육을 받은

23) 조혜경, 「한국 가부장제에 대한 해석적 분석」, 『성, 가족, 그리고 문화』(집문당, 1997), pp.42~43 참조.

24) 이상(본명 김혜경)은 태어나자마자 장자 계승을 위해 친부모의 곁을 떠나 자식이 없는 백부의 집으로 옮겨졌다. 그의 조부는 아이의 이름을 '바다와 같은 넓은 곳을 다스리는 큰 벼슬을 하라'는 뜻으로 해경(海卿)이라 지었다. 김승희, 「이상 평전」, 『이상』, 김승희 편(문학세계사, 1996), pp.18~24 참조.

이상은 근대적인 사고와 전통적인 습속의 심각한 충돌을 자신의 내부에서 경험하며 모든 억압적인 제도와 형식에 대한 강한 부정을 행하게 된다.

나의아버지가나의겨테서조을적에나는나의아버지가되고또나는나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고그런데나의아버지는나의아버지대로나의아버지인데어찌자고나는작고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니나는왜나의아버지를쫓쳐넘어넘어야하는지나는왜드디어나와나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노릇을한꺼번에하면서살아야하는것이나

『鳥瞰圖 詩第二號』 전문²⁵⁾

그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던 가부장제의 중압감은 이 시에서 너무 많은 아버지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띄어쓰기의 거부로 숨가쁘게 이어지는 수많은 아버지들의 존재는 그를 짓눌렀던 가부장제의 연쇄적 구조와도 일치한다. 이 시에서는 근대적 자아인 ‘나’와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첨예하게 대결한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여된 ‘아버지 노릇’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그는 가부장제에 대한 회의와 부정을 행하게 된다.

가부장제의 혈연적 유대는 근대적인 개인적 주체의 개념과는 상이한 문벌의식을 강요한다. “분총에게신白骨까지내게血清의原價償還을強請하고있다.”(『門閥』)는 진술에서는 혈연적 유대에 끈질기게 고착되어 있는 가부장제의 중압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의 시에는 가계의 전통을 잇고 가족의 중심이 되어야한다는 책무로 인한 위축감이 자주 나타난다. “나는우리집門牌앞에서여간성가신게아니다. 나는밤속에들어서서제웅처럼작구만滅해간다.”(『家庭』)에서 집은 보호와 안주의 공간이라기

25) 같은 책, p.153.

보다는 책임과 의무로 가득한 '성가신' 장소이다. '門牌'를 표나게 내세운 것에서도 그가 가족을 가부장적인 제도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부장제의 책무에 시달리는 자아는 '제웅'처럼 무력하고 거짓된 존재로 인식된다. 그에게 가부장제는 자아를 억압하는 조건을 대변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한 식민지 현실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상에게 가족은 가부장제의 폐해가 집중된 것이고 근대적 자아를 억압하는 부정적 대상이다. 그런데 이상에게는 가부장적 존재인 '아버지' 뿐 아니라 '부부'라는 근대적 가족 관계도 철저한 부정의 대상이 된다. 식민지 시대의 시인 중에서 이상처럼 부부관계에 대한 관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경우는 없다.

안해를즐겁게할條件들이闖入하지못하도록나는窓戶를닫고밤낮으로꿈자리가사나워서나는가위를놓린다어둠속에서무슨내음새의꼬리를逮捕하야端緒로내집내未踏의흔적을追求한다.안해는外出에서도라오면房에들어서기전에洗手를한다. 닳아온여러벌表情을벗어버리는醜行이다.나는드디어한조각毒한비누를發見하고그것을내虛僞뒤에살작감춰버렸다. 그리고이번꿈자리를豫期한다.

「危篤 - 追求」 전문²⁶⁾

이상은 여성을 타자로 인식한 최초의 시인이다. 가족의식의 차원에서 볼 때 부부를 대등한 인격체로 보고 부부가 가족의 중심임을 자각한 단계에 이를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근대문학이란 명칭을 붙일 수 있다²⁷⁾면 이상은 그에 합당한 예라 할만하다. 그의 시에서 부부는 대등한 존재로서 팽팽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의 시에서는 흥

26) 같은 책, p.164.

27) 이승원, 앞의 글, p.14.

미롭게도 집안을 지키는 남성과 집밖에서 활동하는 여성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집안의 남편은 아내에 비해 열등하고 무력한 존재로서 끊임없이 아내를 의심한다. 부부 사이는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차 있다. 그의 시에 나타나는 부부는 서로 의심하면서 방관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한다. 결코 화해할 수 없는 타자로서의 부부는 일찌감치 근대적 가족의 병리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건강하고 화목한 가족에 대한 그의 꿈은 가부장제의 중압과 기만적 부부관계로 인해 절망과 좌절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나는24歲. 어머니는바로이낳새에나를낳은것이다. 聖세바스티앙과같이아름다운동생·로오자룩셈부르크의木像을닮은막내누이·어머니는우리들三人에게孕胎分娩의苦樂을말해주었다. 나는三人을代表하여—드디어—

어머니 우린 좀더형제가있었음싶었답니다

—드디어어머니는동생버금으로孕胎하자六個月로서流産한顛末을告했다.

그녀석은 사내였는데 올해는19 (어머니의한숨)

三人은서로들알지못하는兄弟의幻影을그려보았다. 이만큼이나꼴지—하고形容容하는어머니의팔목과주먹은瘦瘠하여있다. 두번씩이나咯血을한내가冷情을極하고있는家族을爲하여빨리아내를맞아야겠다고焦燥하는마음이었다. 나는24歲 나도어머니가나를낳으시드키무엇인가를낳아야겠다고생각하는것이였다.

「肉親의章」 전문²⁸⁾

이 시는 이상의 시로서는 드물게 가족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등장인물도 여럿이 나와 다른 시들의 자폐적인 느낌과는 상이하다. 24세인 화자는 가족과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형제들은 더 많은 형제들이 있었다라면 좋았겠다고 하고 어머니 역시 유산된 아이를 안타깝게 회상한다. 이들 모두 풍성하고 화목한 가족을 꿈꾸는

28) 김승희 편, 『이상』, 앞의 책, p.190.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꿈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이 시의 어머니는 생명력이 넘치는 건장한 모성과 거리가 멀다. 어머니의 수척한 팔목과 주먹으로 묘사되는 유산된 동생은 허구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두 번씩이나 각혈한 몸으로 결혼과 생산을 꿈꾸는 화자 역시 헛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나도어머니가나를낳으신것처럼무엇인가낳아야겠다”는 생각은 허위와 불모의 절망적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의 표현이다. 그러나 그 욕망은 어머니나 형제들의 공허한 말과 몸짓이 암시하는 것처럼 이루기 힘든 희망이다. 종족 보존의 가부장적인 책무와 무엇인가를 낳고 싶다는 창조의 본능은 병약하고 무기력한 처지로 인해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 이 시에 나타나는 어머니는 생산성과 창조력의 화신으로서의 모성의 이미지에서 벗어난 사실적인 어머니로서 당시의 시로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허위와 불모의 이미지가 가득한 이상시의 가족은 당대 현실의 불모성과도 상통한다. 식민지의 모순이 함축된 수도 경성에서 근대적 자아의 예리한 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이상은 가부장제의 억압에 저항하고 가족의 허위를 간파한다. 그에게 가부장제는 모든 억압적인 제도의 상징이며 우선적인 부부관계와 불모의 가족은 절대적인 절망의 표현이다. 그의 시는 폐쇄적이고 기만적인 인간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닫힌 사회와 극도로 개인적인 근대적 주체의 고립감을 치열하게 증명한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중압과 무기력한 자아에 대해 냉철하게 직시했던 시인은 어머니를 통해서도 생산성이 고갈된 불모의 현실을 재현한다. 그의 시에도 풍부하고 생명력 넘치는 가족에 대한 동경이 없지 않았으나, 불가능한 이상보다는 불모의 현실을 드러내는 예리한 자의식이 우선했던 것이다.

6. 결론

본고에서는 1920~30년대 시에 나타나는 가족과 여성의 형상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김소월, 백석, 이용악, 이상의 시를 대상으로 가족과 여성의 삶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또한 그것이 당대 현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고찰하였다. 특히 가족 이데올로기에 의해 신비화되어온 모성을 여성의 삶과 구체적 경험의 산물로 재인식해야한다고 보고 각 시인들이 모성에 대해 어떤 형상을 부여하는지를 눈여겨보았다.

김소월의 시에서 가족은 전통적인 가부장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혈연적 공동체로 나타난다. 그의 시에서 식민 치하의 삶은 가족의 가치를 더욱 공고하게 하며 가족의 상실을 초래하는 현실은 부재와 결핍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그의 시에서 가족과 고향의 상실을 표상하는 '집'은 그 추상성으로 인해 상상 속에서만 복원된다. 여성은 자연과 같이 절대적이고 회생적인 존재로 이상화되며 낭만적 동경과 향수의 대상이 된다.

백석 시에서 가족은 끈끈한 혈연관계에 의한 친근하고 화해로운 공동체이다. 그는 친족 공동체와 본원적인 고향을 모성적 공간으로 구현하여 민족적 삶의 원형을 복원한다. 원체험의 기억과 낭만적 상상에 의해 복원된 모성적 공동체는 민족의 원형에 대한 동경과 상통한다. 이상적인 여성의 형상과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환상 역시 식민지 현실의 파행적 근대와 계몽적 이성에 대한 반동에 해당한다.

이용악은 당대의 사회 역사적 상황과 긴밀하게 관련되는 가족과 여성의 형상을 그려낸다. 고향을 잃고 떠도는 유이민들의 처절한 가족사와 타국으로 팔려간 여인들의 비극적인 삶의 묘사는 당대의 민족적 현실을 침예하게 반영한다. 그의 시에서 고통받고 유린당하는 여성들의 수난상은 비극적 민족 현실과 일치한다. 극한 상황으로 인해 가족은 가

치는 강화되고 어머니는 절대적인 보호자로 인식된다.

이상은 가부장제에 대한 과감한 비판과 부정을 행한다. 가부장제는 모든 억압적인 제도의 상징이며 가족은 가부장제의 폐해가 집중된 부정의 대상이다.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찬 부부와 불모의 가족에 대해서도 그는 절망과 좌절감을 드러낸다. 그의 근대적인 예리한 자의식은 폐쇄적이고 기만적인 식민지 현실과 가족의 허위를 치열하게 거부한다.

식민지 시대의 시인들에게 가족은 시대의 모순과 개인의 체험이 만나는 문제적 공간으로 드러난다. 식민지 현실에 대한 저항이 급선무였던 이 시대에 전통적인 가족 개념은 오히려 공고하게 유지된다. 가족의 해체나 여성의 성상품화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폐한 현실 속에서 기존의 전통과 가치관을 수호하려는 보수적인 의식이 강화된 것이다. 가족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커지면서 낭만적 상상에 의해 본원적인 가족의 형상을 구현하려는 경향도 두드러진다. 아버지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신성하고 위대한 모성의 형상이 강조된다. 이상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성에 대한 신비화와 낭만적 접근은 여성 주체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엄밀하게 파악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절박한 식민지 현실로 인해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첨예한 질문은 다음 시대로 유보된다.

□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김소월, 『진달래꽃』(매문사, 1925), pp.1~234.
 김승희 편, 『이상』(문학세계사, 1996), pp.91~231.

백 석, 『사슴』(선광인쇄주식회사, 1936), pp.1~69.

이용악, 『分水嶺』(삼문사, 1937), pp.19~20.

이용악, 『낮은집』(삼문사, 1938), pp.1~81.

2. 단행본

김준오, 『시론』(삼지원, 1995), p.415.

가스통 바슐라르, 『공간의 시학』, 광광수 역(민음사, 1990), p.115.

3. 논문

김승희 편, 「이상 평전」, 『이상』(문학세계사, 1996), pp.15~88.

김현자, 「적극적·창조적 모성과 삶 본능의 에너지」, 『한국여성시학』(깊은샘, 1997), p.9~44.

김현자·엄경희, 「한국 근현대문학에 나타난 가족담론의 전개와 그 의미」, 『한국언어문학』 51집(2003.12), pp.459~489.

백 석,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 『여성』 3권3호(1938.3), pp.16~17.

신범순, 「시에서 '가족'의 기호와 상징」, 『포에티카』(1997.여름호), p.74.

유임하, 「모성의 근대성과 그 소설적 전개」, 『한국문학과 여성』(아세아문화사, 2000), p.81.

유종호, 「식민지 현실의 서정적 재현」, 『다시 읽는 한국시인』(문학동네, 2002), pp.177~202.

이승원,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가족」, 『시안』(2003.겨울호), pp.12~28.

이혜원, 「한용운·김소월 시의 비유구조와 욕망의 존재방식」, 『현대시의 욕망과 이미지』(시와시학사, 1998), p.7~194.

장영우, 「한국 여성의 문학적 초상」, 『한국문학과 여성』(아세아문화사, 2000), p.56.

조혜정, 「한국 가부장제에 대한 해석적 분석」, 『성, 가족, 그리고 문화』(집문당, 1997), pp.42~43.

배리 소은,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권오주 외 역(도서출판 한울, 2003), pp.9~42.

Abstract

The Family and Woman in the Poetry of 1920-30's

Lee, Hye-Won

The goal of this paper was to study appearance and meaning of the family and woman in the poetry of 1920-30's, especially those of Kim So-Wol, Bak Seok, Lee Yong-Ac, and Lee Sang. Their poetry proved the reality of life vividly by the life of family and woman of their age.

Kim So-Wol's poetry showed the fact that the life of colony make the value of family to be increased. The colonial life which made the family dissolute appeared the lacked space. The woman was idealized absolute thing like nature, and became the object of romantic admiration.

In Bak Seok's poetry, the family caused intimate and peaceful blood relation. The matriarchal system which was restored by basic memory and romantic imagination proved the admiration about the national archetype.

Lee Yong-Ak's poetry expressed the appearance of family and woman which was related with the social situation of that time closely. The description about the wandering people who lost their hometown and the woman who was soled out to the foreign country reflected thoroughly on the national reality of that time.

In Lee Sang's poetry the patriarchal system was denied flatly. In his poetry, the patriarchal system was a symbol of every oppressive system. He denied a family keenly because it had all kinds of corruption of the patriarchal system.

In the colonial age, the traditional concept of the family was maintained stoutly; because the need of resistance against imperialism was the first value.

The more the disparate between the ideal about the family and the real increased, the more the inclination to realize the elemental family by romantic imagination and mystify the maternity rose. The most of poetry showed strongly the traditional concept of family in that time, excepting Lee Sang's poetry.

key words : Family, woman, maternity, patriarchic system, Kim So-Wol, Bak Seok, Lee Yong-Ac, Lee Sang.

■ 위 논문은 3월 30일 부고되어, 4월 20일 심사 완료 후, 5월 3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